

실·국장급만 6명 ... 도 역대 최대폭 인사 예고

과장급도 대거 ... 반환점 도는 최문순 도정 '성과 중심' 방침

오는 7월1일자로 예정된 도 하반기 정기인사가 역대 최대 폭으로 단행된다. 민선 6기 반환점을 돈 최문순 도정이 대대적인 쇄신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지사의 남은 도정 2년은 새로운 사업 추진보다 사업의 결실을 거둬야 하는 시기다.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운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주요 보직에 대한

발탁인사가 어느 규모로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이다. 우선 국장급은 전면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국장급 중 한만수 도의회 사무처장과 최원식 건설교통국장, 김보현 기획관 등 3명이 이달 말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또 3명이 명예퇴직 의사를 밝혀 최대 6자리까지 인사요인이 발생한다. 기존 국장급의 자리 이동과 소수직렬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다. 과장급은 6명이 이달 말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여기에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인사들과 시·군 부단체장 인사 교류까지 포함하면 역시 큰 폭의 개편이 예상된다. 도는 인사를 앞두고 다면평가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가 업무와 상관없는 인기 투표 또는 정치행위에 의한 인사라는 청 안팎의 비판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성현기자

건설기업 체감경기 하락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4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8.5로 전월 대비 7.1포인트 떨어졌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강원 건설수주 3개월 연속 '내리막'

4월 2932억원, 작년보다 26.2% 감소... 민간공사 실적 줄어 지역업체 "도내 대형공사 분할 발주 등으로 참여기회 늘려야"

강원 지역의 건설수주액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늘어났던 공사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도내 건설업계의 물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강원 지역 건설 수주액은 2932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6.2%가 감소했다. 수주액 감소는 건축 등 민간부문이 주도했다. 지난 4월 민간부문은 1933억원으로 지난해 4월 수주액보다 41.9%가 감소했다. 건축 공종에서 수주액이 45.8%가 줄어든 2018억원에 그친 영향이 컸다.

올해 증가세로 출발했던 강원 지역 건설 수주액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내림세를 걷고 있다. 지난 2월 강원 지역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월보다 34.4% 감소했고, 지난 3월에도 수주액은 43%가 줄었다.

특히 전국 수주액은 증가하고 있어 강원지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4월 전국 건설수주액은 10조68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가 늘었다. 4월까지 누계치를 비교해도 전국 수주액은 15.3% 상승했다.

4월 건설수주 집계 (단위: 원)



도 건설업계는 평창 동계올림픽 공사 발주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주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강원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물량 확보는 물론 도내 대형 공사를 분할 발주해 최대한 지역업체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최근 도에 도로 공사의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분할 시행하고 100억원 미만 지역제한 분할 발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